

노동조합의 정보 이용하기

첫 번째 마당, 컴퓨터통신 따라잡기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교육위원

정보여행의 전제조건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정보 여행에 나서기 전에 점검할 사항이 있다. 먼저 독자는 컴퓨터 통신이 가능한 하드웨어(컴퓨터 본체, 모니터, 통신 모뎀, 키보드, 전화)와 소프트웨어('이야기', '한네트', '하이퍼터미널' 등 한가지 이상의 통신용 프로그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컴퓨터 통신 접속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통신에 필요한 기본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준비되지 않으면 정보여행은 불가능하다. 배 없는 항해란 있을 수 없는 법, 이 난을 읽기에 앞서 우선 통신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추도록 하자. 그리고 엔진 시동을 어떻게 거는지 모르고 있다면, 그리고 항해기술

을 몰라도 마찬가지이다. 접속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지만, 그런 사람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연구소의 필자가 있다는 사실을 참고해도 좋을 듯하다.

컴퓨터통신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의 종류는 다양한데 그 중 필자가 사용하는 통신 프로그램은 '도스용 이야기 7.3'이다. 최근에 팬티엄급에 '윈도우즈95'를 기본 운영체제로 하는 컴퓨터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윈도우즈용 통신프로그램들도 많이 사용하고는 있지만, 아직 절대 다수의 이용자들은 '이야기' 프로그램을 애용하고 있다. 노동조합에서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 난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야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정보의

바다를 향해 돛을 올려볼까 한다(그림 1).

가자! 천리안으로

현재 컴퓨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있는 대표적인 업체들은 데이콤의 '천리안'과 한국통신의 '하이텔', 그리고 나우콤의 '나우누리'가 있다. 이 밖에도 삼성과 현대에서도 컴퓨터 통신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서비스가 '천리안'이고, 연구소도 '천리안'에 가입되어 있는 관계로 천리안을 탐사해 보자.

천리안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가상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여권이 필요하다. 개인 혹은 법인에 대해 서비스 업체가 부여하는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가 바로 그것이다. 전화를 걸어 천리안의 서비스망에 접속된 후 제일 먼저 물어오는 것이 아이디와 비밀번호이다. 간혹 남의 여권을 도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세계에서 담당하려면 자



그림 1) 이야기 초기 화면



그림 2) 천리안 탐색



그림 3) 경제산업부

신의 여권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참고로 연구소의 천리안 ID는 'kisi21' 이고, 비밀번호는 '*****' (!)임을 알려드린다.

'천리안'에 접속하면 처음으로 화면에 나타나는 것이 탑메뉴(TOP MENU)이다(그림 2). 탑메뉴는 천리안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출발점이다. 2.전자우편 방으로 가서 공문이나 편지를 주고 받거나, 12.뉴스/잡지 방에서 KBS의 문자방송이나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등 중앙일간지의 신문기사들을 훑어볼 수 있다. 그렇다면, 탑메뉴에서 노동관련 정보는 어디에 숨어있을까? 우선 '16.경제/산업' 방으로 가보자.

[그림 2]와 같이 맨아랫줄에 '16'을 입력하고 실행하면, '경제/산업' 방이 나온다(그림 3). 메뉴의 제목을 살펴보니 '8.경영/노동' 방에 댜지 걸리는데... '8'을 입력하고 실행해 볼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8.경영/노동' 방에 노동정책연구소가 운영하는 '3.노동조합정보', 주간노동자 신문이 운영하는 '9.노동자신문' 방,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가 운영하는 '11.매일노동뉴스' 등 노동 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방이 여럿 있다(그림 4). 이번 호에는 '5.노무정

보'를 방문해 보기로 하자.

'노무정보' 방에 들어오니 (그림 5)에서 볼수있듯이 '1.노동소식', '2.최근판례' 등 노동관련 정보가 가득하다. 최근에 어떤 판례들이 나와 있는지 궁금하니 '최근판례' 방을 들어가 보자. '1'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쳐서 '최근판례' 방에 들어가 보니, 최신 판례의 순으로 관련자료가 떠올랐다(그림 6).

'1'을 입력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림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법원이 올해 5월 7일 해고의 효력을 다루고 있는 노조위원장의 조합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판시한 내용이 보이고 있다.(그림 7)

오늘의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



(그림 4) 경영/노동

고, 화면 아래 부분에 보이는 몇 가지 명령에 대해 살펴보자. 화면의 아래부분에 보이는 명령어들은 각 단계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다.

기본 명령어를 알아

(그림7)의 화면 아래부분을 살펴보자.

1) '다음페이지(엔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말 그대로 엔터키를 치면 관례의 다음 페이지를 볼 수 있다.

2) '목록열람(L)'은 관례의 목록을 보여주는 명령어이다. 즉 [그림6]에 보이는 목록을 보고 싶으면 'L'을 입력한다.

(그림1)에서 (그림7)까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각 단계별로 화면 아

래부분에 나타나는 명령어 묶음이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많은 보이는 명령어인 '정보찾기(FIND)', '직접이동(GO)', '초기메뉴(T)', '상위메뉴(M)', '집속종료(X, BYE)', '기타(Z)'를 살펴보자.

4) 'M'은 '몇 단계로 돌아간다'는 명령어이다. 예를 들어 (그림 5)에서 'M'을 입력하면 (그림 4), (그림



그림 5) 확인문제



그림 6) 노우장보



그림 7) 관후48

4)에서 M 을 입력하면 (그림3)으로 간다. 찾아들어온 방을 거꾸로 돌아나갈 때 사용하는 명령어이다.

5) ↑ 는 탐메뉴로 돌아간다는 명령이다. 어느 방에서든 상관없이 ↑ 를 입력하면 탐메뉴, 즉 (그림2)로 돌아간다.

6) X 는 '집속을 종료한다'는 명령이다. 통신을 그만하고 싶다면 X 를 입력하면 통신이 끊어진다.

다음 호에는 컴퓨터 통신에서 찾은 정보를 갈무리 또는 다운하는 방법 - 즉 끊어서 모으는 기술과 그렇게 해서 저장한 정보를 '아래아한글' 과 같은 워드프로세서를 통해 가공하고 활용하는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울러 '연속출력 (NS)', '정보 찾기 (FIND)', '직접이동(GO)' 등 미처 설명하지 못한 명령어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하겠다.

일단 만사를 제쳐두고 컴퓨터 앞으로 달려가자. 백번 읽는 것보다는 한번 키보드를 두드려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百見而不如一打!). ♦

이러쿵 저러쿵

현 대 매스 커뮤니케이션 혁명의 총아인 컴퓨터통신을 둘러싸고

두 개의 상반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컴퓨터 통신의 지령성, 전세계성, 쌍방향성, 대량성으로 인해 특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대자본, 신문재벌, 거대방송국)이 지배하는 커뮤니케이션 시대에서 더 많은 민주적 가능성을 가진 풀뿌리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산업에서의 자본집중과 상업화로 인해 새로운 매스 미디어로서 컴퓨터 통신이 갖고 있는 공공성과 민주성이 급속히 파괴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커뮤니케이션 산업의 상업화

1920년대 미국에서 라디오방송 기술이 개발되었을 때도 이와 비슷한 논쟁이 벌어졌다. 개발 초기에는 라디오방송을 사기업으로 만들어 이익을 쫓으려는 시도보다는 을 민주적이고 공공적인 기구로 만드려는 논의가 우세했다. 이윤 추구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아이츄어 집단들이 초기의 기술 개발을 주도했다. 자본가들이 라디오방송에서 상업광고라는 수단을 발견하게 된 것은 192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였다.